

네 개의 키워드로 알아보는 휴·메·트·로 소식!

어느새 6월이 지나가고 7월이 다가왔습니다. 며칠간의 장마 끝에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찾아올 것 같아요. 무섭게 찾아들 무더위에 에어컨 켜 걱정 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렇지만 달리 생각하면 여름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도 충분히 많은 듯해요. 타오르는 열정, 강렬한 에너지,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같은 느낌들 말이지요.

여름이 선사하는 생동감처럼, 활기찬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휴메트로의 다양한 캠페인과 새로운 도전에 관한 내용인데요. 휴메트로, 각각의 앞글자에 맞추어서 더욱 재미나게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저 휴블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러 가보실래요?

* 휴머니즘이 살아있는 공간, 부산 도시철도 : 심폐소생술 캠페인

(사진1)

(지난 5월 17일, 본사에서 직원분들이 심폐소생술 훈련을 하는 모습입니다. 꾸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지요.)

여러분들의 수많은 발걸음이 머무는 공간, 바로 지하철인데요. 부산 도시철도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자 많은 사람과 지나쳐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루에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지하철이기에 도시철도를 타고 가다 보면 다양한 이야기와 모습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때로는 지하철에서 건강 이상 증세를 보이는 승객분들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위급상황은 언제 발생할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긴급 환자 발생 시 빠르고 정확한 대응을 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아주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 1-1)

부산교통공사에서는 이처럼 도시철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

에 대처하기 위해 안전 캠페인을 시행했습니다. 바로 심폐소생술 교육 캠페인이었는데요. 지난 5월 8일, 도시철도 2호선 센텀역 대합실에서 진행되었답니다. 해운대소방서, 대한손상예방협회와 함께 했으며, 시민과 교통공사 직원분들이 직접 심폐소생술 방법을 배우고 홍보 캠페인 또한 진행한 자리였어요.

이날 이루어진 교육의 내용은 심정지 발생 후 4분 이내에 행해야 할 응급처치 방법이었습니다. 골든타임 설명,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 심장충격기(AED) 사용법과 실습, 하임리히법 교육 등이 1시간 동안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휴메트로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중시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너무나 고귀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지요. 다음에 교육이 또 실시된다면 저 휴블리도 꼭 한번 참여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 메(매)일 매일 이용하는 도시철도, 양심 사수 대작전! : 부정승차 단속 캠페인**

(사진2)

오늘 하루, 지하철을 이용해 바쁜 걸음을 옮기시진 않으셨나요? ‘시민의 발’, 지하철을 타고 매일 출퇴근을 하거나 어딘가로 향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거의 매일 꾸준히 이용하다 보니 교통비 걱정도 많이 되실 거라 예측됩니다. 늘어가는 교통비에 한숨이 나오더라도 부정승차 시도는 절대로 해선 안 되겠지요.

‘은근슬쩍 타면 되지, 누가 알겠어?’, ‘걸리지만 않으면 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령 적발되지 않는다고 해도 부정승차자를 지켜보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양심이지요. 양심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양심으로 인해 사람이 비로소 사람다워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듣는 일은 몇 몇한 삶을 위해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에서는 시민의 양심을 사수하기 위해 부정승차 단속 캠페

인을 시행했습니다. 지난달 22일 부산 도시철도와 동해선의 환승역 3곳(교대, 벅스코, 거제)과 부산 김해경전철과의 환승역 2곳(사상, 대저)에서 실시되었답니다.

(사진2-1)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부산-김해경전철(주)과 함께 합동으로 진행된 캠페인이었는데요.

이날, 단속요원 분들은 환승 통로에서 '정당한 승차권 사용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 주세요'라는 구호를 제시하며 시민들에게 활발히 홍보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직접 승객의 부정승차를 단속하고 옳게 이끄는 활동도 시행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지하철 부정승차 행위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해지실 것 같은데요. 저 휴블리가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부정승차란 부정한 방법으로 내야 할 운임보다 적은 돈만 내고 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돈을 내지 않고 타는 무임승차 역시 부정승차에 속하지요.

지하철 부정승차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청소년 또는 어른이 어린이용 일회용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 어른이 청소년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 앞사람이 교통카드를 태그하면 뒷사람이 붙어서 가는 경우
- 승차권 없이 개집 표기를 넘거나 비상 게이트로 승차하는 경우
- 승차권을 개표하지 않고 승차하거나 무임권 대상자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승차하는 경우
- 장애인 혹은 경로우대 승차권(무임교통카드)을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
- 이용 도중 승차권을 잃어버렸을 경우
- 타인의 신분증으로 승차권을 발매하는 경우
- 유효하지 않거나, 도난·분실 등 사고 처리된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경우
- 편도 1구간 승차권으로 2구간으로 갈 경우

지난해 부산 도시철도의 부정승차 단속 건수는 9,115건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이 중 5500건(61%)이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이며, 할인 승차권(카드) 부정 사용이 3140건(34%), 우대권 부정 사용이 491건(5%)으로 밝혀졌습니다.

부정승차 건수가 9000여 건에 달했다고 하니 상당한 충격이 아닐 수 없는데요. 휴메트로의 부정승차 단속 캠페인 소식을 통해 많은 분이 부정승차의 심각성을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양심의 눈이 부정승차자, 그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정당한 승차, 꼭 지켜주시기를 소망해봅니다.

*** 트라이(TRY), 도시철도 발전을 위한 끝없는 시도 : 트램 도입 추진**

(사진3)

여러분들은 트램을 보신 적이 있나요? 해외여행 중에 보았거나 이용해 본 분들도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트램은 일반적인 도로 위에 깔린 레일 위를 주행하는 노면전차를 뜻하는데요.

아직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교통수단이지만 프랑스 파리, 홍콩 등지에서는 흔한 교통수단입니다. 전기를 사용해 움직여서 오염물질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친환경 교통수단이기도 하지요.

이러한 트램을 부산교통공사에서도 운행할 계획을 세우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정말이지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는 휴메트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트램 도입 계획을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실까요?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5월 31일, 공사 회의실에서 트램 도입을 논의하는 신 교통시스템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사진4)

강연에서는 해외 사례 및 트램의 부산 도입 가능성과 타당성 등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는데요. 공사는 트램 도입의 우수 사례 조사 및 관련

DB를 구축하며 신 교통시스템 전담팀을 구성하여 트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지난 3월, 이른바 ‘트램3법’이 통과되면서 트램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트램3법’은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그리고 도로교통법을 포함하여 그렇게 불린 것입니다. 트램은 선로 위를 달리는 도시철도로 분류되어있어 건설사업 추진 및 운영을 위해 법 개정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지요.

트램3법이 2년여 만에 모두 통과되었기 때문에 부산시와 함께 도시철도 3호선 강서선 트램 건설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총연장 21.3km의 강서선(대저역~명지지구)에 총사업비 524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착공 준비를 시작할 계획하에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산교통공사에서는 기장군 정관선 건설사업 또한 추진 중인데요. 지난 4월 29일 기장군에 따르면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이 국토교통부의 투자심의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이후의 절차가 정상 진행될 시, 정부 사업으로 확정되어 이르면 2028년에 정관선이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했는데요. 정관선 사업은 국토부의 위 구축계획 중 하나입니다. 총사업비 3755억 원(국비 2253억 원·지방비 1502억 원)을 투입해 동해남부선 좌천역~정관신도시~월평사거리(12.8km 구간)에 트램을 운영할 계획하에 있지요.

정관선에는 총 14개의 정거장을 만들 예정이며 트램은 강서선에 이어 부산 지역에서 두 번째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정관선 건설로 인해 트램이 도입된다면 정관의 부족했던 대중교통이 완화되면서 교통난 또한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램이 하루빨리 건설되고 운영되어서 더욱 편리한 부산 도시철도로 더 널리 그 명성을 펼칠 수 있길 바라고 싶습니다.

*** 로드(ROAD), 지하의 길을 달려나간다 : 통과 열차**

(사진5)

지하철을 기다리다가 승객을 태우지 않고 지나쳐가는 열차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그냥 지나가는 열차를 보며 ‘뭐지?’하고 궁금했던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 휴블리가 지금 여러분께 이 ‘통과 열차’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과열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시운전 열차와 회송 열차인데요. 그렇다면 시운전 열차에 대해 먼저 알아보을까요?

(사진6)

시운전 열차는 통상적인 전동차 검수(일상검수, 월상검수, 연 검수)를 마친 후, 해당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해도 되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승객을 싣지 않은 채 운행한답니다.

차량 점검뿐 아니라 전차선, 궤도 등을 점검해 볼 때도 시운전 열차를 운행하고 있지요. 시운전 열차를 운행하는 정기적 주기는 없습니다. 다만 선로 교체나 전차선 교체 등이 있을 때는 운행이 비교적 더 자주 행해지는 편이지요.

다음으로 살펴볼 열차는 회송 열차인데요. 회송 열차는 보통의 경우, 월상 검수 등의 검수 상황 때 운행됩니다. 휴메트로 각 호선에는 주 차량기지가 있는데요. 각각 1호선은 노포 / 2호선은 호포 / 3호선은 대저에 있습니다.

1호선의 경우 신평에도 차량기지가 있지만, 주 차량기지가 노포에 있는 만큼 노포에서만 할 수 있는 검사가 있답니다. 그럴 땐 신평기지에 있는 열차를 노포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이때 승객을 싣지 않는 무정차 열차로 해당 열차를 기지까지 보내지요. 그 후 검수가 완료되면 다시 무정차로 신평까지 차를 보낸답니다. 이런 열차를 ‘회송 열차’라고 합니다. 때로는 3호선 대저차량기지에 있는 차를 노포로 보낼 때도 있는데, 이때도 회송 열차로 기지까지 보냅니다.

통과 열차에 대한 궁금증이 좀 해소되셨나요? 살펴보신 것처럼 통과 열차는 결국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달려나갔던 거랍니다. 그러니 혹시 바쁘신 길에 그냥 지나쳐간다고 해서 ‘통과 열차’를 너무 미

워하진 말아 주세요~!

지금까지 '휴메트로', 각 글자에 해당하는 키워드와 함께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가시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정보가 있으셨는지요. 부산교통공사의 다양한 소식을 말씀드리면서 저 휴블리 또한 많이 배울 수 있었는데요. 동시에 감탄도 했습니다. 승객분들의 편의를 지켜드리며 건강한 도시철도를 만들기 위한 휴메트로의 노력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다음에도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휴메트로 기자단 장진실이었습니다.